



광주의 7월은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4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해질 19:50  
달출 16:24 달짐 02:33

볼레지수 높아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23/30, 서울 23/28, 대전 23/30, 부산 23/29, 대구 23/28, 전주 23/29, 광주 23/30, 목포 23/28, 여수 23/30, 나주 23/30, 완도 23/29, 강진 23/29, 해남 23/29, 장성 22/30. 생황지수: 주의, 보통, 높음.

‘유해물질 덩어리’ 인조 손톱

액체형 접착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네일팁서도 중금속 검출

앞으로 여성들은 인조 손톱<사진>을 선택하는 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결표)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의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인조손톱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손톱 모양의 네일팁과 이를 손톱에 붙

이기 위한 액체형·테이프형 접착제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중 9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톨루엔,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 톨루엔이 5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의 1.7~40.3배(33~806mg/kg),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mg/kg이하)의 5~22.8배(5072~2만2751mg/kg) 초과 검출됐다.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은 피부와 달으

면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들이마시게 되면 두통,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테이프형 접착제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접착제뿐만 아니라 네일팁에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네일팁 20개 중 성인용 네일팁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00mg/kg)을 5.8배(2911mg/kg)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어린이용 인조손톱 네일팁



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성인용 네일팁에 관한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한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현영기자 young@

광주·전남 오늘 최대 120mm 비

제3호 태풍 ‘남마돌’은 벗어났지만 광주·전남지역은 5일까지 최대 30~120mm 이상에 달하는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치는 곳이 있겠다”면서 “지난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지만 아직까지 가뭄이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침수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5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에 30~80mm가 내리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김현영기자 young@

“5·18재단 정상화 기대 어렵다”

“기관 경고 받은 이사장·상임이사 숨방망이 징계”  
광주시민단체, 불투명 재정운용 등 검찰 고발키로

올해 초 광주시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뒤 사퇴압력을 받아온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경미한 수준의 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5·18 기념재단의 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광주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단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4일 5·18 기념재단 이사회 등에 따르면 5·18 기념재단 이사회 이사 11명은 지난 3월 31일 시 특정감사결과 처리안 등에 대

한 이사회의를 열어 재단을 부적정하게 관리·운영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2명에게 주의 및 경고의결 조치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은 재단의 위상에 맞는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상임이사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법령 및 재무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내부 직원·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A이사는 “광주시 감사결과를 살펴봤는데, 이사장과 상

임이사가 해임조치를 받을 만큼 과오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사회 의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지난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5·18 기념재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기본재단(기금) 운영·직원 채용업무·직원처우개선 소홀·5·18 사료기증관련 사업추진절차·지방보조금사업 집행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행정·신분상 기관경고 및 시정·주의 처분을 내렸었다. 기관경고의 경우 해당 기관의 부적절한 관리운영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長)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하지만 안팎에선 이사회 의결과 관련,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5·18 기념재단 임원들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도 경미한 수준의 처분만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에 대한 동반사퇴 촉구와 함께 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18 기념재단 혁신을 요구해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연 뒤 ‘재단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민사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시 감사에서 재단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는데,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동반사퇴하라”며 “이날 입장 발표는 최후통첩이다. (5·18 기념재단에) 이사 파견과 제반사업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건설현장 사망사고 1년새 20% 증가

재해자수는 11% 늘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수가 전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0개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84명으로 전년 대비 31명(20.3%)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를 제외한 재해자 수는 3837명으로 369명(10.6%)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환산 재해율은 2012년 0.43%를 기록한 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작년에는 0.57%까지 올랐다. 환산 재해율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재해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원

청뿐 아니라 하청업체 재해까지 포함해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환산재해율이 높은 요건건설산업, 극동건설, 동원개발, 서희건설 등 99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615개사에 대해서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대 대형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횟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등을 따져 산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100점 만점)를 보면 호반건설(40점), 대우건설(50점), 삼성물산(54.5), 현대엔지니어링(54.4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8·15 광복절 기념 제3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7년 8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5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